

# 부산종친회 등산회 밤줍기 산행기

# 권영창 회장, 권오춘 부회장 임명

부산 등산회(회장 권영인)는 지난 9월 28일(토)에 회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알밤줍기 산행에 나섰다. 이산은 부산종친회 송암(聖峯) 명예 회장 밤나무 과수원으로 작년에도 왔던 곳이다. 산골에서 자란 나이 지긋한 분이려면 대부분 알밤에 얽힌 추억 한, 둘은 가지고 있다. 떨어진 알밤을 주우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밤나무 밑을 헤집던 기억이나 밤 따는 구경을 하다 밤송이에 맞은 기억, 몰래 밤송이를 따서 까먹거나 불에 구워 먹던 기억 등등...

산정으로 가는 버스 간은 모처럼의 나들이에 모두가 들떠 소란스러웠다. 회장 단에서 준비한 간식과 식수를 나눠 준 뒤, 등산회장·종친회장·명예회장이 차례로 의례적인 인사 뒤에 한 시간 반을 달려 목 적지 신등에 다다랐다.

풀과 잡목을 베어낸 밤나무 산은 별 초한 듯 깔끔하다. 많던 밤나무를 베어내고 편백나무를 심은 덕분이다. 일부만 남겨 둔 밤나무 아래로 앞다투어 달려가는 모습에서 동심이 묻어난다. 알밤을 찾아 여 거저기 밤나무 밑을 돌며 해매년 회원 들은 두어 시간이 지나자 저마다 알밤을 한 보따리씩 안거나 메고 마치 역전의 용사 처럼 나타나 밤줍기 무용담을 쏟아낸다. 발갈게 익은 알밤은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예뻐 기분이 좋다. 이번에는 참여자가 많고 늦잠은 아직 때가 일러 작년 대비 보따리가 조금 빈약해 보였다.

그렇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점심때에 맞추어 각자 준비해 온 도시락과 산주(山主)인 성용 명예회장이 마련한 수육에 소주, 탁주를 펼쳐 놓으니 여느 잔치상 못지 않다. 시장기가 돌 때라 차려진 음식을 나눠 먹는 가운데 술잔이 한 순배 돌자 주변은 안중에도 없는 듯 목소리가 점점 높아 간다. 흡사 소풍 나온 학생들 처럼 모두가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아져



주거니 받거니 술잔이 춤을 춘다. 땀 흘린 뒤 술 한 잔이 감로주나 꿀맛과 다를 없다.

그렇게 빈속을 채운 뒤에 술기운이 거 나한 중에 삼삼오오 모여 기념사진을 찍 고, 단체 촬영을 마친 뒤에 주변을 둘러보 니 어느새 가을이 성큼 눈앞에 다가왔다. 여기저기 참취와 산구절초가 하얀 꽃을 뽐내며 하늘하늘 춤을 춘다.

유난히 무덤덤 올 여름은 여전히 기세 가 살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솟구치 는 데도 계절의 순환은 어김이 없다. 민 감한 감나무 잎은 하나, 둘 물들기 시작 하였고, 역새도 은빛 춤사위를 준비하고 있다.

일행이 탄 차가 지나가는 들판은 온통 황금물결이 출렁대고, 강둑에는 코스모스 꽃이 나폴나폴 가녀린 춤을 춘다. 부산종 친회 등산회는 2009년 창립 이래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정기 산행이나 부산 근 교의 둘레길 순례를 해 오고 있다. 10월에는 덕유산 무주구천동으로 야유회를 겸 한 산행을 계획 중이며, 종친 가족이면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니 희망자는 부산종친회(804-8703) 나 등산회로 신청하면 된다.

귀로에는 생비량면 원광(原光) 고문의 별장에 들러 집 구경과 함께 다과로 목을 축였다. 이날 등산회 모임에 나와 주신 송 산(英彦) 종친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과 회원들에게 즐겁고 유쾌한 하루를 선 물테 주신 송암(성용) 종친회 명예회장과 등산회 서암(영인) 회장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부산종친회 권영창

권영창 회장은 권오춘 퇴계학진흥회 상임부회장을 권오상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 권기모 총무국장, 권용만 교수가 배석한 가운데 안동권씨 대중회 부회장에 임명했다. 권영창 회장은 한학을 하신 분께서 부회장을 맡아 주신다고 하니 큰 영광이다. 대중회에서는 안동시 서후면 일대를 국가유산 성지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도 추진하고 있고 영정 제작이 완료되면 능골에 시조 태사공 동상도 건립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소나무도 영주의 권오현 회장이 춘양목 50그루를 기증해서 현재 식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식재한 이팝 나무 60그루와 소나무를 합하면 110그루이다. 1그루에 1명씩 110명 신청을 받아 명패도 만들 예정이다. 앞으로 대중회를 위해 좋은 역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권오춘 부회장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잔잔한 파도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 숨어 있는 사람도 나와 적선지공(積善之功)을 이루리라 본다. 특히 아드님이 소나무를 기증했다니 음덕이 숨어 있다 드러난 것 같아 저 또한 명패 만들기에 동참하겠다. 그 소나무가 수백 년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니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안동권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동안 공부한 한학과 경륜이 대중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 추밀공파 참판공 종중 임시총회 및 야유회 개최

안동권씨 추밀공파 참판공 종중(회장 권혁주, 원주)에서는 2024년 8월 31일 원주시 갈촌길 73(도원농이백숙)에서 임시총회 및 야유회를 부부 동반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는 권용덕 총무의 사회로 시조 묘소 망배, 회장 인사말씀, 2024년도 상반기 경과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혁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명문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생활해 주시기 바라며 종중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시고 모처럼의 부부 동반 야유회이니 즐거운 시간을 갖기 바란다 고 말했다. 종중에서는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기록을 모아 후손에게 알리고자 참판공계(參判公系) 선조들의 약사집(略史集)을 편찬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을에 시조 태사공 추향제에 종원들이 참석하기로 의결하였고, 임원 개선에서는 신임 임원으로 회장 권영익, 부회장 권병호, 감사 권오찬, 권순섭, 총무 권용덕을 선출하였다.

임시총회가 끝난 후 야유회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와 안주를 곁들이며 총회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화합의 장으로 이어졌다.

권용덕 총무

# 권세현씨, 중국 항저우 푸조영화사 초청배우 초빙

서울예술대 출신 권세현 배우가 9월 28일 중국 푸조(普照)영화사(총경리 리후이·李慧) 초청배우로 초빙됐다. 리후이 푸조영화사 총경리는 이날 오전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빈강(濱江)구 시싱(西興)루 소재 마타이커(馬泰克) 본사 회의실에서 권세현씨에게 초청배우 초빙장을 전달했다. 푸조영화사는 또 권씨를 푸조영화사 한국대표로 임명했다.

리 총경리는 "권세현 배우를 한중 합작 영화와 자체 제

작 및 투자 영화에 출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권세현 배우의 활약이 기대된다. 권세현 배우는 2018년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를 졸업한 뒤 2023년 미스인터콘티넨탈 한국대회 미(美)를 수상했으며, 중국 푸단(復旦)대학교 한반도연구소에서 초청연구원과 상해아태영화공사 초청배우, 남양주시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했다.

권세현 배우 아버지는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이자 안동권씨 대중회 권기식 자문위원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중국 푸조영화사 초청배우 초빙장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은 리후이 푸조영화사 총경리(오른쪽)와 권세현 배우

## 동정

▲ 권오형 삼덕회계법인 대표(대중회 부 회장)가 국가원로회의 부의장(재정,회계담당)과 국민의힘중앙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었다. 권오형 부의장은 경희대 경영학과(65학번)를 졸업하고 세무관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회계사 외길 인생을 걷고 있으며, 가족이 모두 회계사로 유명하다. 제29대 경희대 총동문회장, 제39대와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경인일보 감사이자 능동장학회 이사이며 최근에는 안동권씨 홍보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 권혁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한국행정연구원 제13대 원장에 8월 취임했다. 권 신임 원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유엔(UN) 사회개발연구소 연구조정관, 서울대 글로벌행정발전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다. 권혁주 원장은 1963년 태어나 우신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임기는 3년이다.

▲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2일 산업연구원(KIET)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 권 원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유엔사회개발연구소 연구조정관,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 서울대 글로벌행정발전연구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권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 권오정(61)씨가 9월 24일 춘천소방서장 표창을 받았다. 권씨는 지난 7월 11일 낮 12시 1분쯤 춘천시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뒤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소화기를

들고 달려가 초기 진화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자칫 큰 화재로 커질 수 있었으나 권씨의 활약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권성준(29세) 흑수씨 셰프 '나폴리 맛 피아'가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했다. 그는 "즐거는 것 없이 주방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의문이 들어서 이 대회를 나오게 됐다"며 "우승하니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게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앞으로 요리사답게 집과 주방만 왕복하는 요리사가 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현재 그는 용산에서 식당 '비아올레도 파스타바'를 운영하고 있다.

▲ 권기석(추밀공파, 36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이사관이 8월 31자로 2급 이사로 승진했다.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지 1년 만이다. 권기석 이사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제4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2022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청사에 마련한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에 소통왕 공무원으로 뽑히기도 했고, 2021년에는 규제개혁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친은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이다.

▲ 권형안(추밀공파 정현공계 화산부원군 종중, 36세) 박사가 2022년 4월에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권형안 박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대기과학을 전공했으며, 2019년 "정지계도위성을 위한 포름알데하이드 산출 알고리즘 개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의 하향식 추정"에 대한 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글로벌환경경영학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친은 권구택 아리랑국제물류주식회사 회장이다.

# 2024년 始祖 太師公 秋享祭 案内

## 2024년도(權紀 1095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11월 19일(금), 오전 10시

♣ 장 소 :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일원)

○ 연락처 : 서울 02-2695-2483~4/안동 054-854-2256

※ 전날 대당회는 능동재사 준공검사 등으로 부득이 개최하지 못하오니 추향제에 참여하는 족친 여러분께서는 당일 입재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추향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종중이나 단체의 제수성금은 향사 전용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301-0268-6817-11, 예금주: 안동권씨대중회)

###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 권영창